



군종주보

2026년 11월 1일(제1324호) 모든 성인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최애 성인? 든든한 벗인 성인”

지난 5월 유튜브에 올라온 ‘미국에서 난리라는 성당’, ‘미국 Z세대 새로운 핫플 성당’이라는 영상을 기억하는 형제자매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인상 깊었던 저는 뉴욕 맨해튼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동기 신부님과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다니는 대학생 가운데 미사에 나오는 많은 청년이 각자 최애(favorite) 성인이 누구인지 대화하기를 좋아해. 마치 최애 아이돌, 최애 축구 선수를 물어보는 것처럼 서로 물어보기도 해. 또 가장 좋아하는 성인을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거나 투명 케이스 뒤편에 성인·성녀 성화를 끼워놓는 것을 보기도 해. 또 ‘Litany’라는 성인·성녀 호칭기도를 자주 마치고 있어.”

성당에 다니는 미국 청년처럼 ‘최애 성인’을 정해두지는 않았더라도,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아 각자의 세례명에 해당하는 성인을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호성인’께 진구를 청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일 미사나 격오지 종교 행사 때, 사도 신경 안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고백한 것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군 성당은 특수한 상황이기에 민간 성당보다 예비자 교리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준비 기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짧고 소중한 시간이 끝날 때쯤 저는 장병 예비자들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세례명을

선택했습니까? 세례명으로 정한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명으로 정한 성인은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의 수호성인입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성인들은 우리를 지지해 주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에도 침묵 중에 함께하며 우리를 바로잡아 줍니다.” “나는 성인들과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에게 청원하고 있는가? 나는 몇몇 성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성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모범에 감화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나의 수호성인을 기억하고 가까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는 감사송을 되새기며 마치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미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 쓰고 아버지를 영원히 기리고 있나이다. 나약한 저희도 성인들의 뒤를 따라 영광을 기뻐하며 그들의 도움과 모범으로 힘을 얻어 활기찬 믿음으로 영원한 고향을 향하여 나그네길을 서두르고 있나이다. 그들의 모범은 나약한 저희에게 힘이 되나이다.”



김진오(요셉) 신부
장필(육군 제50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답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묵시 7,2-4,9-14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1요한 3,1-3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복음 영성제송

마태 5,1-12ㄴ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묵 50년사)

서부전선 문산과 장단 지구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전방지역에 부임한 김 신부는 미사 중에 ‘민주 군인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기도하는 군인이 되라고 강론하였다. 첫 미사에는 7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후 10여 명의 미 해병 고문단 신자들이 함께 참석하였고, 김 신부는 미군 신자들을 위해 영어로 강론을 하기도 하였다.

전방에서의 미사 봉헌은 건빵 상자를 몇 개 포개어 마련한 제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미 해병들은 김 신부를 찾아 고백성사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전선으로 달려갔다. 예하 부대를 방문할 때면 짚차 본네트 위에 채플린 세트(Chaplain set)를 설치하여 제대를 만들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판문점 상공에 낮에는 기구, 밤에는 조명등의 불기등을 바라보며 산야에서 성사를 집행하였는데, 36고지 미사 때에는 적의 포격으로 미사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휴전 협정이 조인되기 전 어느 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고막을 찢는 듯한 포성이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판문점을 굽어 보는 36고지의 우리 해병들이 숫적으로 우세한 중공군의 기습을 받은 것이다. 급보를 받은 나는 즉시 36고지로 달려갔다. 2대대 3중대 CP의 해병들은 나를 맞이할 겨를도 없이 인해전술로 공격해 오는 중공군을 격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상자가 속출했다. 나는 가능한 한 교우 해병들을 찾아서 고백을 듣고, 성체를 영해 주었다. 이 광경을 본 신자 아닌 해병들도 같은 예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에서 하느님께 의지하려는 인간 심리의 당연한 발로였다.

1953년 5월 20일 해병대에 부임한 김창석 신부는 그해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고 포로 교환이 시작되자 개신교 군목들과 함께 판문점 ‘자유의 마을’에 파견되어 귀환하는 국군 포로들을 맞이하였다. 김 신부는 성체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귀환하는 포로들에게 성사를 주고, 포로들이 도착하면 유엔군 신자 장병들의 참여 하에 ‘자유의 마을’ 광장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묵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와우! 저 하늘을

와우!
더 높게, 더 높게.

와우!
더 빨리, 더 빨리.

내 외침에 맞춰
더 높게, 더 빨리.

그렇게
저 하늘 끝까지
나를 데려다주는
그런 분이 내게 있습니다.

111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노트르 담 드 그리스(은총의 성모)



작가 미상, 15세기경 제작
석회석 조각 후 채색, 112×75cm
오귀스탱 미술관, 프랑스 툴루즈

이 작품은 후기 중세 국제 고딕 양식(International Gothic)의 우아함과 세련미를 잘 보여준다. 하나의 석회암 덩어리를 깎아 제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의복의 주름은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인물들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과 피부, 눈, 손은 물론 손톱까지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모님의 처연하면서도 의연한 표정과 기품 있는 자세,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표정과 자세는 석회석이라는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유려하다.

오늘날 중세 석조 조각을 떠올릴 때 흔히 생각하는 흰색 석상과 달리, 이 작품은 본래 화려한 색채와 금박으로 장식되었다.

성모님의 의복은 청색과 백색, 금색을 조화롭게 사용해 채색했으며, 금박 위에는 붉은색의 투명한 채색층을 덧입혀 미묘한 색조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피부 역시 여러 겹의 안료를 사용해 손톱 주변의 열은 갈색부터 뺨의 부드러운 분홍빛까지 정교하게 표현했다. 심지어 외투 안쪽의 모피에도 금박을 입혔을 만큼, 눈에 잘 띄지 않는 세부 장식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조각가의 뛰어난 기술은 돌의 질감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성모님의 오른팔이 몸통에서 분리되어 보일 수 있도록 석회암을 깊이 파내어 입체감을 강조했으며, 의복에는 조각 도구의 규칙적인 흔적을 남긴 반면 피부는 완벽하게 매끄럽게 다듬어 냈다. 반면 머리카락과 모피는 가느다란 조각칼과 끌로 세심하게 표현했다.

▶성모님 세부도



◀아기 예수님 세부도

이 작품은 16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네 차례 재채색되었으나, 2002년 복원을 통해 중세의 원래 색채를 되찾았다. 손상된 부분과 아기 예수님의 소실된 손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자태에는 세월을 초월하는 고요한 품위와 우아함이 깃들어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구소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모든 성인 대축일: 칠성 김영인 신부

◆ 교구장 동정

- 노도(제2신속대응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1일(주일)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존인성사의 해